

## 제주에美치다

손세실리아 시인



나는 제주에 산다. 물설고 낮선 섬으로 이주한 지 8년 차다. 지금이야 중국인과 외지인의 폭력적이다시피 한 부동산 매입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어렵기도 하려니와 설사 있다손 쳐도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입도(入島) 열망을 포기하는 게 다반사지만 그 당시만 해도 곳곳에 공한지와 폐가가 널려있어 비교적 쉽게 실행할 수 있었으니 나로선 행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선 심히 유감이란 게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다.

세월의 폭격에 맥없이 내려앉은 석면슬레이트 지붕, 푹푹 꺼진 구들장, 뼈대 앙상한 흙벽, 뜯어져 나간 대문, 무성한 풀로 점령당한 마당..., 버려져 온전한 구석을 찾아보기 힘든 집을 겁도 없이 단숨에 매입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 홀린 듯 순식간에 저질러버린 사건이다. 구글 지

도를 검색해 공항에서 현장까지 동행한 제주 토박이 후배는 이를 두고 금방이라도 뭔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찝찝한 집을 소풍날 보물찾기 쪽지를 발견한 초등학생처럼 해맑은 표정으로 둘러보는 내가 이해는커녕 특이해 보였노라 후일담처럼 들려줘 파안대소하기도 했다.

기존 뼈대를 건드리지 않고 보존하면서 카페 용도로 변모시키는 공사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자 고철 비용으로 새로 지을 일이지 웬 헛짓거리인지 알 수 없다는 수군거림과 집 같지도 않은 집을 속아서 살 때부터 알아봤다는 등, 세상 물정 어두워 길게 고생할 거라는 등 비아냥거렸지만, 그때마다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쳤는데 당신들 눈엔 오죽하겠나’ 싶어 맞대응을 삼갔다.

저자 사인이 든 시집으로 벽면을 채웠다. 가장 값진 재산을 익명의 방문객을 위해 내놓은 것이다. 시를 모르거나, 시로부터 떨어진 이들에게 시 한 편의 위로와 시집 한 권의 여유를 선물하고픈 소박하지만 간절함이 훼손과 분실의 우려보다 앞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여하튼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시집 카페’**. 만조 땀 수상가옥이 되고 썰물 땀 잠겨있던 여가 필 위로 모습을 드러내 한 점 수묵화로 변하는 백 년 누옥, 한때 들쥐와 길고양이와 붉은발 말뚝게가 기거하던 **빈집이 문화공간으로 거듭나 사랑받기 시작하자 미쳤다 조롱하는 이들의 관심이 백 팔십도 달라졌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맵소사! 집 값에만 있으니.**

“여긴 평당 얼마예요? 많이 올랐지요? 나도 그때 샀어야 하는 건데..., 매물 나오면 연락 좀 주세요.” **대부분 공간의 가치보다는 치솟은 땅값, 집값에 관심이 많다.**

물론 부러움일 테다. 그 마음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을 때마다 모욕으로 받아들여지곤 하는 건 왜일까? ‘미쳤다’라는 말엔 단 한 번도 과민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부럽다’라는 말은 어째서 유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어쩌면 그간 가까이서 지켜본 외지인들의 소위 말해 치고 빠지는 전략적 투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제주에 대한 판타지와 이주에 대한 열망을 빙자해 투자 아닌 투기를 일삼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고급 외제승용차를 배에 싣고 미련 없이 물으로 향하는 일이 다반사였으니 말이다.

지금은 종영된 ‘아빠 어디가’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윤후라는 귀여운 꼬마가 피자를 먹고 간 이후 근 7개월여 피자, 피자, 피자 행렬로 몸살을 앓았더랬다. 허기진 이들을 위해 하루 두어 개 굶던 메뉴인데 피자집으로 알려져 곤욕을 치른 게다. 고백하거니와 행복하지 않았다. 시가 깃들 고요가 바닥나버렸다. 결국 그해 절반가량 문을 닫았다. 그런 내게 “물들어왔을 때 물 받아야지 뭐 하는 것이냐?” 조언하는 이도 있었지만 새겨들지 않았다. 내가 생각해도 미쳤다.

간혹 단체예약 문의를 받기도 한다. 받을 수 없노라 정중히 거절한다. 일단은 소란스러워지는 걸 원치 않고, 어렵사리 방문한 소수의 손님이 앓을 자리가 없어 돌아서는 걸 원치 않아서다. 은행 빚쟁이 주제에..., 그래, 나 미쳤다. 1년 전부터는 팔리지도 않는 시집, 그것도 저자들의 사인이 든 사인본 전문서점을 카페 안에 들였다. 대형서점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어가는 시집을 현금으로 구입해 출입구 정중앙에 배치하자 평소 경영엔 참견하지 않던 가족들조차 혀를 찼다. 사인을 받았으니 반품도 안 되는 일이라 우려가 앞섰던 게다.

재삼 수궁한다, 그래 미쳤다.

개업 초기부터 불규칙적 휴일, 들쭉날쭉한 영업시간을 고수하자 얼마 못가 망할 거라고들 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름다움의 거리가 필요하고 공간도 사람처럼 한 달에 십 여일 정도는 휴식이 필요하단 판단을 꺾지 않았다.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데 천만 다행히도 내 주변엔 미친 사람이 여럿이다. 비정상적인 경영을 이해하고 심지어 존중까지 해주는 이들 말이다. 출연료와 입장료 없이 진행되는 고품격 문화행사도 그러하고, 곳은일 묵묵히 거들어주는 가족 같은, 때론 주인 같은 짱짱한 뒷배가 또한 그러하다. 번번이 헛걸음하면서도 푸념하는 법 없이 방문하는 인연법 고수의 단골들도 그러하고, 누가 사겠나 싶은데 완판을 기록하는 시집도 그러하다. 실로 미쳤다. 손님도 주인도 미친 거 맞다. 미쳤긴 미쳤는데 정확히 말해 美쳤다. 오 놀라워라, 한글을 한자로 변환했을 뿐인데 마술처럼 정확한 표현이 되다니.

나는 제주 이주민이다. 제주시를 제주詩라 읽을 만큼 美쳐 지낸 지 햇수로 8년차다. 행여 제주 이주를 꿈꾸는 청년들이나 은퇴 이후 제주에서의 정착을 설계하는 이들이 있다면 당부 드린다. ‘땅 한 평 값’에 대해 궁금해 하지 말고 ‘행복 한 평 값’을 우선시하시라. 여행자들에게도 당부 드린다. 속물적인 작태에 넌더리가 나 외지인을 외지 것이라 폄하하는 섬 토박이들의 심정을 십분 헤아려 어딜 다니든 예우를 갖추시라. 제발 이지 제주에서는 미치지 말고 美치시라. ㉠

※손세실리아: 시인. 1963년 전북 정읍 출생. 2001년 <사람의 문학>을 통해 작품활동 시작. 시집 <기차를 놓치다> <꿈결에 시를 베다>, 산문집 <그대라는 문장> 등 출간. 중3 국어 교과서에 시 ‘곰국 끓이는 날’이 실렸다.

※본문의 파랑색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점역(點譯)하였습니다.